

Gibson씨 미소 훈련법의 효과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대학원 치의학과 보철학 전공 김 정 희

I. 연구 목적

최근의 치과의료는 기능의 회복과 함께 심미성의 회복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미소는 개개인의 얼굴 모습과 개성을 평가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매력적인 미소는 좋은 첫 인상을 만드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진술되었거나 부정교합, 우식, 빈색치, 불량보철물 등의 치과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환자들은 무의식 중에 이를 은폐하려는 시도로 미소를 짓지 않거나, 미소를 지어도 입술을 오므리거나 입을 손으로 가리고 웃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부자연스런 행동들은 치과치료가 끝난 후에도 계속 남아 있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환자들은 얼굴 전체의 이미지 개선을 위하여 미소 훈련을 받을 필요가 있다.

II. 연구 대상 및 방법

본 연구는 미소 훈련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보철수복 상태나 치아배열 상태가 비교적 양호한 데도 미소가 자연스럽지 못한 35명의 원광대학교 남녀 학생을 대상으로, Gibson씨가 고안한 미소 훈련법을 교습하였다. 훈련전과 훈련 2주, 4주 후의 미소 사진을 10명의 치과 의사가 평가 하였으며, 미소 훈련에 관한 설문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서로 비교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III. 결론

1. 미소 훈련 2주 후와 4주 후의 미소 평점은 각각 훈련 전의 미소 평점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다 ($P < 0.01$, $P < 0.001$).
2. 미소 훈련 4주 후의 미소 평점은 2주 후에 비하여 높았다 ($P < 0.05$).
3. 미소에 관심이 있던 군과 관심이 없던 군 간의 비교에서, 미소 훈련 전에는 각 군간에 차이가 없었으나 ($P > 0.05$) 연습 2주 후와 4주 후에 각각 관심있던 군의 미소평점이 높아졌다 ($P < 0.05$).